



김옥희

월급 육만원으로 적금을 넣어
이백사십만원 모아 결혼을 하고



월급 육만원으로 적금을 넣어 이백사십만원 모아 결혼을 하고

생애 개요

김옥희는 1959년에 동갑내기 부모님이 오십 세에 낳은 늦둥이로 목포에서 태어났다. 남들보다 일찍 들어간 초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중학교 입학년 때 집안 사정이 나빠져 납부금을 내기 어려워 지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집 근처 빵공장에서 잠시 일하다가 당시 월급을 많이 준다는 방직공장 모집공고를 친구를 통해 전해 듣고 입사시험 응시를 결정했다. 당시 일신방직은 경쟁률도 높았으며 필기시험과 면접, 신체검사를 거쳤다. 처음 일신 방직에서는 실을 감는 권사 일을 했고 후에는 직포과에서 베를 짰다. 근무 삼년차가 되어서야 입사 시 적어냈던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이후 일년여를 더 근무하다가 건강의 문제로 자진 퇴사했다. 삼개월 후 전남방직에 입사해 삼년 육개월간 근무했으며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내며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월급을 모아 결혼준비를 했으며 퇴사와 함께 결혼하였다. 결혼 후 미용실 등을 하며 1남 1녀를 양육했다. 집에서 딸을 출산하다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신장이 좋지 않은 아들에게 기꺼이 신장을 기증했으나 결국 다시 떼어 내게 되는 등 아들의 힘든 시간을 지켜봐야 했다. 아픈 자식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제 두 남매는 어엿하게 자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광양제철 협력사에서 일하면서 만 육십 세에 순천연향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에 입학해 모든 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고등학교 입학년 과정을 공부하면서 평생교육원에서 영어, 북, 기타를 배우면서 더없이 행복한 제이의 인생을 살고 있다.

4대 독자의 장녀로 태어나

아버지는 목포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안 하고 공부만 많이 하신 분이셨고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정이 많았죠. 듣기로는 제 위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열아홉 살 무렵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손이 없었는데 나를 늦게 낳으셔서, 엄청 귀하게 컸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노는 것도 보고 싶고 공부하는 것도 보고 싶다’고 해서 뒤에 와서 봤고. 그래서 애들이 “너 할아버지 왔다, 할머니 왔다” 그랬어요. 나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두 살 때부터, 한 사십 년을 임동 전남방직 부근에서만 살았어요. 원래는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저를 낳고 광주로 이사를 왔고, 어찌하다 보니까 살림도 많이 없어져 버렸죠. 동갑내기 부모님이 오십 세에 저를 낳았으니 이미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소녀 가장이 돼버렸어요. 동생하고는 일곱 살 차이가 나는데, 옛날에 아버지가 사대 독자이다 보니까 손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나이 드셨다보니 소풍 갈 때 김밥 같은 것도 다 내가 싸줬어요. 동생하고는 나이가 많이 차이 나서 항상 내가 엄마 같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광주에서 하셨던 식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진을 보니까 ‘삼화식당’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이라고는 할 줄 몰랐는데 사람을 두고 식당을 운영했어요. 또 발산에서는 ‘중앙이발관’을 차려서, 그것도 이발사를 두고 한 오년 운영했던 것 같아요. 발산쪽으로 뽕뽕다리를 건너서 오면 큰 길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아버지가 “여기는 깡패가 너무 많아서 못 해먹겠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동네에 너무 깡패들이 많아서, 와서 이발을 하고도 그냥 가버리거나 이발 비용을 달라고 하면 행패를 부리니까 깡패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 치웠다고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치마를 입혀서 학교 보내세요

초등학교 삼학년 때까지 나는 남자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어요. 또 아버지가 항상 업어서 교실까지 데려다줬고요. “내려놓으면 꺼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해서 그랬다”고 하대요. 그

런데 한번은 선생님이 교문 앞에 딱 서 계셨어요. 아버지 보고 “애기를 지금 여기서 내려주라”고. 아버지가 “교실까지 업어다 주겠다”고 하니 선생님이 “정문을 벗어나서는 아버님 자식이지만 정문부터는 내 자식이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치마를 입혀서 학교에 보내세요. 똑똑한 애기를 왜 바보 만들려고 그러시냐”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하지만 입고 다니니까 애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보자고 화장실까지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니까 참 괴로웠겠죠.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을 참았고, 참다가 집에 오는 중에 실수를 해버린 적도 있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삼학년 때부터는 치마를 입고 다니고 애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김옥희
백일 기념사진



남자 옷을 입고 자란 어린시절



과목했지만 자상했던 아버지

교복입은 학생들을 숨어서 지켜보고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 목포에서 계속 뭔가 팔아다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살림이 없어져 버렸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보조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은데 우리는 어리니까. 가르칠 여력도 없었죠. 생활도 어렵고 납부금도 못 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납부금 안 가져오면 막 불려서 혼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립초등학교는 졸업했고 중앙여중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때 내가 열세 살 정도가 됐으니까 부모님은 육십대 중반에 가까웠겠죠. 납부금을 못 내고 중퇴를 했으니 당연히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골목을 지나가다가도 친구들을 보면 숨고, 학생들이 교복 입고 학교에서 나오면 그런 것도 숨어서 지켜봤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보면 항상 부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벌어야 먹고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직장생활을 했죠. 그 당시로는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친구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하면 ‘선생님도 되고 싶다’, ‘대통령도 되고 싶다’고 하던데 저는 ‘마도로스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불려서 이유를 물었는데 저는 바다는 길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망망대해에 올라서 항해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가슴을 펼치고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는 뜻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것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열여섯 살이 안되어 남의 호적으로 입사하다

중앙여중 일학년에 다니다가 가을쯤엔가 중퇴를 했어요. 유동에 ‘풍광빵’ 공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서 한 일년 삼개월 정도 다닌 거 같아요. 빵을 기계에 집어넣으면 반으로 갈라져 나오는데 나는 그 반을 벌려서 속에다 크림 바르는 일을 했어요. 다니면서도 일을 할 만한 다른 곳을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친구가 방직공장에 사원 모집을 한다고 공고 붙은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들 사이에도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가 월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소개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옛날에 간부들 집에서 식모처럼 한 이삼 년을 살면 거기에 들어 보내줬나 보더라고요. 들어온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공장에 들어가기 힘들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십육세에 신체 건강한 사람. 키가 작아도 안 되고 몸무게가 적어도 안 되니까 친구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쇧덩어리를 주머니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쟁률이 셋어요. 테

니스장에 전부 집합시켜보면 한 백오십명 됐는지 거기가 사람들로 아주 빼곡했어요.

학력 기준은 따로 없었고 국졸만 되면 돼요. 글씨는 어느 정도 아는지, 또 산수풀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분수 같은 것 몇 문제, 더하기 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글씨 쓰는 거, 이름, 주소 같은 것. 간단한데도 그래도 몇 문제 됐어요. 한 스무 문제 됐던가. 면접할 때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앞에 한 다섯 명 정도 앉아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줄로 서서 다섯 명씩인가 들어갔어요. ‘어디 사냐’, ‘부모님은 계시냐’ 그런 간단한 걸 물어보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오래 다닐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나면 거기서 바로 결과가 나와 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신체검사를 해요. 필기시험하고 신체검사까지는 그날하고, 면접은 그 뒷날인가 했던 것 같아요. 또 면접 결과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떨어지면.

일신방직은 만 열여섯 살부터 뽑았던 것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성장이 좀 빨랐나 봐요. 그래서 신장 기준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내 이름으로 안하고 남의 호적으로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한 삼년 일하다 보니까 본명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고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꿨어요, 일하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공장 생활

면접하고 공고 붙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일을 시작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통근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집이 가까워서 통근했어요. 보름 정도가 지나고 자기 들어갈 부서가 결정이 됐는데, 저는 처음 일신방직에 있을 때는 실을 감는 권사 일을 했었는데 ‘베 짜는 데에 사람이 모자라다’고 해서 직포과로 가게 됐어요. 자동으로 기계가 베를 짜다가 잘못되면 서잡아요. 실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서요. 그러면 가서 엮어서 다시 가동시키는 일이에요. 여성근로자들이 거의 기계를 다 봤고, 기계 고치는 사람들은 한 명씩 한 조에 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삼교대라고 해도 우리 베 짜는 데만 해서 한 스무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헌 기계를 삼십대 정도 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자동으로 돌아가는 데 육칠십대까지 봤어요. 기계가 있고 각 골목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여공들이 막 뱅뱅뱅뱅 돌아요. 한시도 앉아있을 틈

이 없고 계속 서서, 달리기도 아니고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그 여덟 시간 동안을 일해요. 밥 먹는 시간이 이십분에서 삼십분 정도 있는데 얼른 먹고 오면 또 계속 그렇게 돌아야 돼요. 기계가 서면 거기 가서 얼른 보고 또 기계가 안 설 때는 베가 잘 짜지고 있는가를 양쪽으로 보면서. 김불이 있으면 계속 잘못돼서 기계가 돌아가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이었죠.



전남방직 기숙사 정문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 십분 정도 거리에 식당이 있는데 가서 밥만 먹고 바로 와야 돼요. 밥 먹고 오는 동안 조장이나 조장 밑에 사람들이 그 기계를 봐주는데 얼른 먹고 와야 돼. 늦게 오면 또 그것도 혼나. 기계 시스템에 따라서 계속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웬만하면, 명절 때 아니고 특별한 때 아니고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요. 회장님인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기계를 잠깐 멈춰가지고 묵념하고 다시 기계 살리고 했던 것이 기억나요. 사이렌이 짹 울리면서 그 시간대에 묵념을 했어요. 김영남 회장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키도 굉장히 크고 그랬던 분인데 가끔

한 번씩 공장 안을 시찰하셨어요. 회장님 오신다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군대식으로 청소 깨끗이 해놨고.

교대할 때는 삼십분 전에 다음 교대반들이 들어와요. 베가 잘 짜지고 있는지 자기 구역을 점검하고 먼지도 다 말아내면서. 사이렌이 울리면 메타기를 전부 돌려.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이 어디서부터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대가 됐어요. 자기 반 기록이 한 달에 몇 미터인지 다 나왔는데 일등이네, 이등이네, 그런 것으로도 굉장히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것(포상)도 없었는데 기록을 그래프로 그려놓고, 그러니까 경쟁이 돼서.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나도 안돼요. 어떻게든 빨리 돌리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쉴 틈이 없이 일했죠. 또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주간이 일곱시에 시작해서 세시에 끝나거든요. 세시에 끝나면 그 다음날 열한시에 작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제 야간으로 바뀔 때, 그때가 쉬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없어. 새벽에 일곱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여섯 시 반까지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되고, 끝나고는 삼십분을 더, 말은 구역 기계 청소를 하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시간을 더 하고 왔지. 삼십분 전에 출근해서 삼십분 후에 퇴근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된 비용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거기가 돈도 제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제일 좋은가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급은 조장까지 됐고 그때는 월급도 수당이 조금 붙었던 걸로 기억해요.

야간 근무조일 때 집에서 나올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와 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통근하는 사람들은 다들 자는 시간에 나오니까 힘들죠. 또 직포와 같은 데는 걸음을 많이 걸으니까 뚱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날씬했어요. 여덟 시간 내내 걸어 다녀야 되니까. 직무마다 다르지만 손가락이 잘린 사람, 팔 한쪽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었죠. 나도 전남방직에서 손가락 살점이 푹 떨어져 나갔는데 병원도 못 갔어요. 추운 날은 여기가 아려와. 드림에 실이 감기게 되면 날카로운 고리칼로 잘라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살점이 덜렁덜렁하게 됐는데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짹 동여매고 그대로 버텼어. 어차피 결석도 안 되고.

월급 타다 주면 엄마가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 봐요. 삼십만 원짜리 적금을 했는데 삼십만 원이 그때는 큰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동네 사람이 먹고 도망갔어. 그 후로 내가 조금 위기가 왔어요. 살도 많이 빠지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막 어지러워 빙빙 돌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부모님한테는 그런 말도 못했어요. 그만둔다고 하면

말릴 것 같아서. 그때가 사춘기 비슷한 때였던 거 같아요. 계속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뭔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안 벌고 있으니까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삼개월 정도 쉬었다가 전남방직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남방직 들어갈 당시에는 일신보다 경쟁률이 적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전자회사 같은 것이 생겨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일신방직에서 일할 때 권사라고 실 감는 데서 아주 잠깐 있었는데 전남방직에다 그걸 할 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베 짜는 데가 너무 힘들니까. 권사는 많이 걸어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사년을 근무했는데 전남방직에서는 기숙사로 들어가서 친구들과하고 있으니까 일에 점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전남방직 내 도서관을 겸한 강당에서

조용필의 '단발머리'에 춤도 추고

입사할 때 기숙사 방이 정해지는데 퇴사까지 그 방에서 생활을 해야 해요. 완전 군대식이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말도 못했어요. 위에 언니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면. 어떤 책임을 맡게 됐을 때나 드물게 방이 바뀌고 나머지는 거의 한 방을 계속 써야 하니까 가족 같기도 했어요. 언니, 동생, 하고 그냥 가족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오후 다섯시에 가서 저녁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든 안 하든 저녁쯤 되면 배가 고파요. 밖에는 튀김집이 죽 있었는데 단골집들도 있어서 무슨 방 몇 호실 아무개라고 하고 외상으로 사오기도 했어요. 월급 받으면 갚는 형식이었는데 그것도 수위 아저씨가 못 나가게 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 다시 작업복을 입고 사감 선생님 모르게 방에 있는 물주전자를 들고 나가. 세시에 일 들어가서 밤 열한시에 끝나는 사람들이 한 여덟시쯤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대에 작업복을 입고 가서 일하다 온 것처럼 해서 밥을 주전자에 하나 담아와. 그래서 거기다 비벼 먹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는 야간 일을 할 때인데, 그때는 근무가 오전에 일곱시에 끝나고 밤 열한시에 다시 일을 들어가면 되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 많이 놀러 다녔어요. 삼교대 할 때 저녁에 심야업할 때 낮에 시간이 좀 비니까 아침에 한숨 자고 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방에서나 딸기밭, 복숭아밭 같은 야외에 놀러 가면 야외전축을 들고 놀았어요. 조용필의 '단발머리'라든가 남진의 '님과 함께' 같은 노래에 춤추고 놀았던 거예요.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사진관에 맡겨서 사진 나온 날은 같이 보고 한참 웃으면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딸기밭이나 복숭아밭에 가서 먹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주인들이 씻어서 바구니채로 무계를 달아서 줘요. 딸기 나올 때는 딸기밭에 가고 포도 나올 때는 또 포도밭에 가고 복숭아 나올 때는 복숭아밭에 가고 참외 밭에도 가고 그렇게 밭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래는 못 놀아요. 왜냐면 저녁에 잠을 자야 야간작업에 들어가니까. 사감 선생님이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감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일 안 갈 때 점호를 하면 여섯시 삼십분에 복도에 쭉 앉혀놔요. 그리고는 잘못하고 다닌 것, 행동에 주의를 주면서 엄마 역할을 하죠. "아무개, 몇 호실에 왜 늦게 들어오냐"고 야단도 치고. "여자들이 맥주가 음료수다 해서 술 마시고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구역마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 더럽게 하면 야단도 맞고 그랬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창문 넘어 몰래 들어와야 되고. 어떤 날은 사감 선생님 몰래 기어서 안 보이게 들어왔던 기억도 나요.

또 친구들 중에 코 골고 자는 애들도 있잖아요. 나란히 아홉 명 정도가 한 방에서 자다 보니까 잠꼬대하는 친구한테 뺨도 맞고 그랬어요. 자기가 임신한 줄도 모른 이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런 사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배가 막 불러오다 보니 사감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8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집에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던 모양이야. 회사에서는 그만두라고 했는데 8개월이니까 애를 떼지도 못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겠어.



기숙사에서는 한 방에 여덟아홉명이 함께 생활했고 각자의 이불을 깔고 덮었다.

음악다방도 가고 펜팔도 하고

시내에 <조약돌>인가 하는 그런 음악다방이 있었어요. 차 마시러 가면 DJ들이 우리를 지목해서 멘트도 해주고. 예전에는 총장로 한복판에 막걸리 나이트클럽도 있었거든요. ‘우다

방’이라고 해서 우체국다방⁵⁰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괜히 만날 사람 없는데 거기 서 있기도 했어요. 총장로가 우리들한테는 꿈의 장소였죠. 그리고 군인들하고 펜팔도 많이 했어요. 송정리쪽에 친구집이 있었는데 근처에 포병대가 있었어요. 그 담장에 있는 데를 걸어가는데 군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가씨, 아가씨”하고 불려서 주소를 주길래 펜팔을 했고 그래서 영화도 한 번 보러 갔어요. 그 사람이 인천사람이었는데 한두 번 친구 데리고 나가서 만났던 기억이 있네요.

또 여기 삼양타이어, 이후에는 금호타이어죠, 옛날에 삼양타이어에 다니는 남자들하고 우리쪽 누군가가 알게 돼서 그 사람들하고 놀러도 가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놀러 갈 때 필요한 것이나 먹을 것은 거의 남자들이 다 준비해 왔고 증심사 같은 데 가서 놀았어요, 몇몇이서 만나서. 제 주변에 그런 회사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 거래가 좀 있었어요. ‘노는 거래’가.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좀 재미있게는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버니까.



동료들과 함께 놀러갔던 복숭아밭에서

⁵⁰ 실제로 다방은 없었으나 우체국 앞을 약속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다방’이라고 부르곤 함.



개관한지 얼마 안 된 국립박물관 앞에서 함께 근무했던 방직공장 조원들과 함께

전두환 물러가라 좋다 좋다

그때는 5·18 사태라고 그랬죠. 어떤 날 밤에 잠들려고 하다가 한 열한시쯤에나 낭랑한 여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호소력 있게 가두방송을 했던 것이 지금도 쟁쟁하네요. 그래서 몇몇 기숙사생들은 뛰쳐나갔어, 막 못 나가게 해도, 나갔던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등경기장 너머까지 그 차를 따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공장 기계가동을 멈추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공들을. 집에도 못 갈 형편인 애들은 기숙사에 남아 있었고.

집이 바로 회사 앞이다 보니까 내다보면 식당 아줌마들이 주먹밥 같은 것을 해서 정문 앞에 놔두고 국 같은 것도 퍼주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또 헬리콥터로 뼈라를 뿌렸는데 “지금 폭도들이 다니니까 전부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아세아자동차에서 차를 갖고 나와서, 그런 차들 택시 할 것 없이 빵빵거리고 다니면서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다”하고 구호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과일 같은 것을 차에 얹어주는 모습도 봤어요. 엄마는 내가 귀한 딸이라 나가서 죽을까 봐 절대 못 나가게 했는데, 나갔던 친구가 공수부대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남대 있는 데서 돌멩이를 주워 옷에 싸서 전대생을 쫓는데 공수부대원들이 총끝에다가 칼을 매달고 “너 이년 죽여 버린다”고 목에다가 들이대더라.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높은 사람이 와서는 “그냥 보내라” 해서 살아서 왔다고. 또 5월 17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로 ‘비원’에서 만나기로 해서 수창초등학교 뒤를 지나는데 공수부대하고 맞붙어서 난리가 났어요. 겁도 없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가지 말라고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학생인지 시민군인지 모르겠는데 나 있는 데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군인들도 뛰어오고. 놀래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와 버렸어요. 또 전남방직 앞쪽에서 부산 화물차를 불태웠던 적도 있었어요. 집 앞이긴 해도 나는 자꾸 밖에는 나가봤어요. ‘언제쯤이나 공장 일을 다시 시작할라나’ 궁금하기도 했고.

월급은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적금도 넣고

월급은 부모님한테 그냥 다 드렸어요. 번 것을 부모님한테 다 갖다 보이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연세 든 노인분들이라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일신방직 근무했을 때 월급은 다 부모님께 갖다 드렸고 전남방직으로 오면서는 내가 일정 부분 월급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자금도 준비하고 싶었고. 그때는 엄마가 길에서 인형 파는 일을 조금씩 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덜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금을 넣었어요. 월급은 처음에 이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일하면서 조금씩 올라갔고, 한 이만 팔천 원까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한 삼년짜리 적금 넣고 나머지는 또 엄마 갖다 드렸어요. 한 삼년에 이백이나 삼백만 원 정도 만들어지는 것을 넣었을 거예요.

결혼할 때쯤에는 월급이 더 올라서 한 육만 원 정도나 됐을까. 사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식비 조금 낸 것 빼고는 돈 쓴 것이 별로 없어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물건도 살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니까. 회사 안에 농협인가 수협인가 있어서 거기다 적금 넣고. 그때 이백사십만 원인가 모아가지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애를 낳고 직접 미역국을 끓였던 시절

남편은 순창사람인데 광주 와서 살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외가쪽 사촌 형부가 통장이어서 동네일을 봤는데, 사람이 부지런하고 좀 괜찮아 보인다고. 중매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

혼했어요. 그냥 너무 직장생활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참 힘들었어요. 스물네 살에 이제는 편안하게 조금 놀아보려고 결혼했는데……

신혼집이라고 해봤자 상하방 월세였어요, 그때 그 사람도 워낙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단 같은 것은 한복 정도 맞췄고 양장 한두 벌 정도, 패물은 반지, 시계, 목걸이로 세 가지 했고 시부모님 이불하고 방석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신혼여행은 아버지 고향인 목포로 갔고. 배를 타고 어느 섬인가를 들어갔다가 서너 바퀴 돌고 나와서 목포에서 하루 저녁 자고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돈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도 가고, 강원도나 속초 같은 데로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 고향, 호텔도 정하고 간 것이 아니어서 그냥 아무 여관쯤이나 되는 데서 하루 잤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섭섭한 점도 있었지만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할 만한 상황도 못 됐고. 임동에서 첫 살림집을 살게 됐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결혼하고도 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도 안 됐고. 신랑도 부모님한테 별로 잘하지 못해서 다툼도 많이 있었어요.

스물네 살에 결혼해서 스물다섯 살에 아이를 낳게 됐어요. 큰애가 딸인데 병원에서 낳지도 못하고 백운동 조산소에서 낳았어요, 싸니까. 그리고 아기 낳자마자 바로 집으로 왔어요. 또 둘째 낳을 때도 병원을 세 군데 정도 들렀는데 신랑이 비싸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서운해서 “그냥 집에서 낳겠다” 하고 고집을 부려서 집으로 다시 되돌아와 버렸어요. 결국 집에서 낳기로 결정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낳자를 잘못 짚어가지고 일찍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신랑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는데 그래서 그때 나이가 서른여덟밖에 안 됐어요. 게다가 애들을 셋이나 데리고 올라왔어. 애들이 아홉 살, 일곱 살, 세 살 그렇게 먹었는데 그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결국은 잘못 짚은 한 달 동안 내가 애들까지 다 밥을 해 먹이게 된 거지. 그러다가는 어머니가 미안했나 봐요. “너, 배 많이 아프면 전화해라” 하고 한 달 만에 내려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딱 이틀 만에 막 또 배가 아픈 거야. 그때는 애들을 안 데리고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조산소에서 낳은 것하고 어머니가 받아주는 것하고 뭔가 다르긴 달랐나 봐요. 애는 이미 나왔는데 배가 계속 아파. 그리고는 새벽에 보니까 웬 핏덩이가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안 빠졌으면 나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당시에 음료 배달일을 하면서도 고물상 같은 것도 했거든요. 백 평 정도 되는 터에다가 고물 같은 것을 막 쌓아두고 살았고 그 옆에 집을 지었어요. 그냥 대충 짓다 보니까 집

도 좁고 화장실은 완전 난장판이었어, 그냥 나무로 대충 붙여놓은. 십이월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눈보라 치는 날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앉은 대로 굳어버려요. 일어서려고 해도 안 일어나져. 손도 얼어서 안 펴지고 그랬어요. 첫 아이 때는 양력 유월 일일이라 좀 따뜻할 때라 몰랐는데 둘째는 겨울에 낳다 보니까 몸조리도 안 되고 집도 추워서 진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도 며칠 동안 수발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가셨는데 신랑도 뭘 해주고 그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침에 직접 미역국 끓여 먹었어요. 애를 봐주거나 그런 것도 모를 때고 그냥 여자만 애를 키우는 줄만 알았어.

시아버님은 새어머니하고 아주 산골에 살았는데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 번씩 광주에 왔어요. 시부모님은 순창에 사셨는데 남편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서 좀 불쌍하게 컸더라고요. 나 출산 때 그 어머니는 새로 얻으신 분이었어. 그런데 귀가 짝 먹어가지고, 뭐 세 살 때 물에 빠져가지고 고막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잘 못 알아들으셔. 말을 아주 크게 하거나 아니면 등을 두드려가지고 입 모양으로 알아들었는데 사람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어. 시어머니가 내가 시집갔을 때 서른여덟 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애들이 어리더라고요. 커가면서 자기 엄마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시동생들이 나를 더 잘 따르더라고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광주를 오면 내가 운동화 사주고 옷도 사 입히고 이발도 다 시켜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도 머리 파마시켜드리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젊은 각시니까.

한 달 사이로 부모님을 보내고

두 분이서 늘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죽으면 나 데리고 가고, 내가 죽으면 자네 데리고 간다”고. 만날 “서로 빨리 데리고 가자”고……. “애들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돌아가실 때도 한 달 사이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맨 처음에는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제사 지내고 아침에 설거지하고 들어오시다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그래서 한 오년 정도 한쪽이 마비된 채로 집에서 지내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도와주시기는 했겠지만 수발을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중풍으로 한쪽을 계속 못 썼고 한 손으로만 일을 다 하셨어요. 워낙 부지런한 분이더라. 이렇

게 먼저 아프신 건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 몸에 갑자기 피부병처럼 온몸에 열꽃이 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이 나 죽겠다” 하시면서 옷을 막 벗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업고 요한병원까지 갔어요. 아버지는 풍채가 좀 좋으셨는데 내가 업고 가다가 막 쓰러 지기도 했죠. 겨우겨우 병원 앞까지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나와서 보시고는 놀라면서 휠체어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모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때 입원해서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악화가 되셔서 또 다른 병원에도 좀 입원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늘 “내가 너 결혼한 것을 보고 죽어야 원이 없겠다. 둘 다 이렇게 놔두고 죽으면 누가 결혼을 시키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매로 결혼을 서둘러서 한 것이었어요. 결혼하고서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상하게 신랑하고 좀 다툼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임종 날에도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대요, 안 돌아가시고. 그런데 신랑이 오니까 손을 잡고 제발 나하고 “싸우지 말고,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랑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니깐 막 그 말을 듣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눈을 못 감으셔. 그래서 내가 눈을 손으로 몇 번 쓸어드리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했더니 그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이상하게 계속 잠만 주무셨어요. 집에 가서 “엄마, 나 왔어” 그러면 “어, 왔냐” 그래놓고 또 주무셔. 그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잠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새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아버지처럼 내가 그렇게 안 잊혔는지 아버지 유언 같이 “잘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기 얼마 전, 굴 무침을 엄마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애기를 업고, 또 연년생이라 하나는 걸리고 가야 돼. 두 분이 누워계신 상황이라 애를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 내가 다음에 와서 해줄게” 그랬는데 결국 못 해드렸어요. 항상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또 엄마가 생선을 자주 줬는데 나는 엄마가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살은 항상 나한테 주고 엄마는 머리만 드시니까 ‘우리 엄마는 머리만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엄마,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내가 줬더니 엄마가 “이놈 새끼야, 내가 머리를 좋아서 먹냐. 느그 줄라고 살을 바르고 그냥 아까우니까 내가 머리 먹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동생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을 모시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납부금을 못 내서 졸업을 못할 형편이었는데 마지막 한 번은 선생님이 납부금을 내줘서 졸업장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나는 결혼해 버린 상황이었고. 그 전까지는 내 월급으로 부모님과 동생까지 생활비를 썼죠.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버리니까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아프시고. 또 내가 아기들을 막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정신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항상 마음은 있는데 결혼생활할 때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부모님한테도 못 해줬고. 그래서 항상 그것이 마음이 아파요. 젊었을 때 나를 키워가지고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내가 잘해드릴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나도 스물여덟이니까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꿈에 그리던 집을 사고

우리집에서 지하수 받아서 애를 씻기면 하얗게 위로 뭐가 묻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앞집에 가서 수돗물을 얻어다가 아기만 목욕을 시키고 그랬어요. 우리집에는 전기도 없었는데 그 앞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냉장고도 돌리지 않고 애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앞집에 수돗물 받으러 가보면 그 집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이런 대문이 있는 집만 있어도 내가 너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집이 우리집이 됐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원도 있는 그 집을 우리가 사게 된 거예요. 큰애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예요. 맞벌이를 하면서 큰 애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보냈는데 하루는 애가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을 양철집이래, 종이집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 엄마가 나중에 좋은 집 살게” 그랬는데, 우연히 옆집에 온 것을 봤어요. 집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한참 사업이 잘될 땐데 보험을 털고 어찌고 해가지고 그 집을 우리가 사게 됐네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애들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그때는 진짜 좋대요.

살림을 일으켰던 성도공병 시절과 그 후

남편은 공장에서 음료수를 받아다가 슈퍼 작은 곳에 배달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냥 유통만 할 때는 힘들었는데 차차 빈 병을 많이 수집하게 됐고 신안동에서 수거된 빈 병을 각 회사대로 분류를 해서 되파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튼짜리 차를 갖고 일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애들은 유치원 보내놓고 병을 고르는 작업을 직접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도 사서 분류를 했고, 남편하고 공병을 팔러 공장에 들어갈 때는 내가 따라가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생활력이 강하다”고. 한번은 시동생이 택시를 타고 ‘성도공병’에 가자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거기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집이라고 했더니 “그 형수 대단하다”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사업하는 머리가 좀 있었던가 봐요. 저녁이면 오리 한 마리를 사거나 뭐든 사서 무조건 든든히 끓여놔요. 큰 술에 밥도 해놓고. 그러면 유통업체 해태나 코카콜라 쪽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가요. 그러면서 자기 것이 아닌 것도 받아다 주고. 그 시간이면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폭 끓이던 것을 한 그릇 퍼주고 다른 반찬도 필요 없이 밥 한술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집으로 다들 몰려들었어. 공병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집은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돈을 잘 벌어서 한 달에 백이십만 원씩 적금도 넣고 그랬지.

성도공병을 운영하면서 ‘내가 다음에 이 일을 그만뒀을 때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깨끗한 직업도 갖고 싶었고 나도 기술을 배워둬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유동에 있는 현대미용학원에 갔어요.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그 동네 옆에 가서 미용보조일을 했어요. 실습도 끝나고 나서는 매곡동에 미용실을 차렸는데 ‘중사’라고 일을 좀 잘하는 애를 들였어요, 내가 서투니까. 그런데 한 삼년 정도 일하다 보니 집이 멀어서 좀 힘들더라고. 다시 임동으로 와서 차고 자리에다가 가게를 차렸어요. 집에서 한 오년 정도 미용 일을 했죠.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90년도 넘어서 성도공병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납품 문제였는데 이전에는 누구든 납품이 가능했던 것을 병을 납품받는 회사에서 지정한 사람에게만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를 거쳐서 가니까 마진율이 안 좋아져서 그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용실을 잠시 차려서 해봤지만 가게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 성도공병을 그만둔 남편은 트럭을 가지고 농수산물 중개일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미용실 문을 닫고 차라리 직장생활을 하려고 일신방식으로 들어갔죠.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갔더니 예전 근무 당시에 과장인가 했던 분이 공장장으로 계시더라고. 그분이 우연찮게 나를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낮에만 하는 일을 한 삼년 했어요. 그때는 소면이라고 기계를 보수하는, 기계를 고치는 남자분들 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남자분들이 네 명 있고 나 한 명. 그때는 그렇게 낮에만 일을 했죠. 그러다가 광양의 지인이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건설직 일꾼을 구한다고 하니까 직장생활을 해보자고 했어요. 애들은 광주에 집을 얻어주고 광양으로 둘이 내려갔죠.

병을 이겨내는 아들과 친구 같은 딸

어느 날 아들이 화장실에서 다급히 불러 갔더니 피 냄새 잔뜩 나는 빨간 소변을 보여 주더라고. 그래서 전남대병원으로 갔는데 고등학교 삼학년이라 입원을 못 시키겠더라고. 아들도 아프진 않다고 입원은 안 한다고 했고. 결국 약만 받아가지고 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무렵에 너무 안 좋아져서 내가 신장을 췌어요. 식구들을 하나하나 맞는지 검사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당뇨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식을 하는 동안에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배려로 한 방으로 옮겨서 생활하다가 같이 퇴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나도 수술 받은 환자인데 내가 서서 아들



미용실 운영 당시 건강하고 해맑았던 아들

반찬을 다 해주게 되더라고. 하루는 친구가 와서 “너도 아픈데 그렇게 반찬을 하나”고 했어요.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는데도 자식이 아프니까 내가 환자라는 것을 그렇게 잊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일년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 떼어버렸어요. 아들하고 딸이 함께 지내라고 쌍촌동에 아파트 하나 얻어주고 나는 광양에 살아서 몰랐어요. 내가 걱정할까 봐 말을 못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몇 번 길에서 쓰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장을 못 쓸 것 같다고 그냥 떼어내고 다른 신장이식을 바로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두 번 다시 남의 신장을 안 받고 싶다고 차라리 투석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신장이식을 하면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투석을 하면 약을 별로 안 먹어요. 아들이 신장을 다시 떼어낸 때가 대학생 때였는데 학교 다니다가 군대도 가게 됐어요. 키가 백팔십이센티에 체구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휴가 나올 때가 한참 지나서야 겨우 만나보니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못쓰게 됐어. 그래서 물었더니 공병부대로 빠졌는데 시멘트 가루 독이 얼굴로 퍼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신장이 막 안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일을 잘한다고 상도 받고 그랬다는데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얼굴도 그러니까 거기서 함부로 휴가를 못 내보냈나 봐요. 휴가 온 김에 전대병원에 검진을 가봤는데 “어떻게 이런 애가 군대를 갔냐”고 그래요. 결국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육개월간 입원해 있다가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아들은 신장을 떼어 내고 투석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막 울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엄마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이기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투석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버려. 너만 그러는 거 아니고. 병원에 가면 투석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투석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속상한 마음은 줄어들 거야”라고 했더니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담양에 시골집을 한 채 사줬어요. 거기서 살라고. 그런데 젊은 애라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주면서 “아들, 이것을 날개 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했어요. 차도 없이 시골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애가 점점 더 심각해지길래. 원래 해외로 다니는 여행 가이드가 꿈이었는데 그것도 포기했다가 차를 한 대 빼줬더니 호텔에 취직도 하고 거기서 며느리도 만났어요. 아들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지금 애기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네요.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한 지 벌써 팔년 정도 됐고 한 번 하면 다섯시간씩 걸려요.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사는 거죠.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항상 며느리

한테도 그렇고 사돈한테도 죄스러워요. 나도 고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것만큼은 해결이 됐어요. 나한테 손주도 안겨주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들은 가장이 되고 나서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더욱 생활력이 강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픈 것을 이야기하면 못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아픈 기색 안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도 많이 편해져서 그 덕에 이제 하고 싶은 것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아프다고 하고 그냥 우울해 있으면 나도 그럴 건데, 아들하고 딸이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리고 딸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뭐든 잘 알아서 하는 아이였어요. 대학 다닐 때도 낮에는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고 큰 딸로서 굉장히 든든하고 나무랄 데 없는 아이였죠. 나름대로 동생 아픈 것을 보고는 빨리 공무원이라도 돼서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학원에 다니면서 경찰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을 보면 꼭 커트 라인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년을 공부하다가 그냥 취업을 결심했어요. 동생은 아프고 엄마는 정신이 없으니 딸도 힘들었나 봐요. 딸은 사춘기도 없이 지냈는데, 아마 그 시기가 사춘기처럼, 한때는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하이마트 인사과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팔 년 전에 결혼해서 애도 낳고 지금 직장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 이년 가까이 애를 봐줬는데 요즘은 참 좋아요. 싸웠다가 빠지기도 하는데 친구처럼 잘 지내요.

내 인생의 디딤돌이었던 방직공장

나한테 방직공장은 첫째로는 우리 부모들한테 뭔가를 가져다줄 수 있는 큰 보람이었고, 둘째로는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들을 만난 곳,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기억을 만들어 준, 말하자면 디딤돌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방직공장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면 집안 살림도 살기 어려웠을 것이고 동생도 학교를 못 다녔을 텐데 거기 다니면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조금 더 낮게 살았고 또 동생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또 나도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거기에서 배웠던 지식과 생활 지혜 같은 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면, 나는 거기에서 서로 사람들하고

나누는 정도 배우고, 또 사회생활에서 내가 지켜야 할 직장의 원칙이랄까. 직장에 다니는 그런 방법, 사회생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사람들에게 “사회성이 좋다”, “뭔가 운영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다리가 튼튼 붓도록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긴 했지만 정말 나한테는 디딤돌이라고 봐야죠.



전남방직 재직 당시 동료의 퇴사를 기념하며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짱'한 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무슨 자서전을 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나는 언젠가는 꼭 내 자서전을 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같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늙은 부모님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까지 했

을까.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젊었겠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자서전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광양제철 협력사에서 구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늦깎이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삼년을 공부하고, 올해 순천고 방통고에 일학년 다니고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요, 공부를. 정말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지냈는데 공부하게 돼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짱'한 일이에요. 다시는 공부를 못할 것 같은 생각, 우리 배움은 이렇게 그냥 끝나나보다 했는데 배움의 길이 또 있으니까.

살면서 제 희망은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내 앞에 놓인 그 상태대로, 남한테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지금 또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어떤 욕심도 없고 내 주어진 대로 봉사하면서 그냥 나라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인터뷰를 하면서 앨범의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김옥희

생애연보

- 1959년(1세) 전남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에서 손이 귀한 부잣집 4대 독자 집안에서 맏딸로 태어남
- 1960년(2세) 광주 북구 임동 전남방직 부근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주
- 1965년(7세) 북구 임동 소재 서림초등학교 입학
- 1966년(8세) 여동생 출생
- 1971년(13세) 초등학교 졸업. 중앙여중(당시 서구 양동 소재) 입학, 중퇴
- 1972년(14세) 북구 유동에 있는 풍광빵 공장에 들어가서 1년 3개월 간 일함
- 1974년(16세) 만15세에 남의 이름으로 일신방직 입사.
- 1977년(19세) 몸이 좋지 않아 가을에 일신방직 퇴사
- 1978년(20세) 3개월 쉬다가 봄에 전남방직 입사
- 1982년(24세) 전남방직 퇴사 후 유통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
- 1983년(25세) 남구 백운동 조산소에서 딸 출산
- 1984년(26세) 아들 출산
- 1986년(28세) 한 달 간격으로 아버지, 어머니 별세
- 1988년(30세) 미용기술을 배우기 시작.
남편과 성도공병 운영하면서 6개월 만에 미용사 자격 취득
- 1993년(35세) 1년 간 미용 실습 후 북구 매곡동에 미용실 개업
- 1997년(39세) 미용실 폐업
- 1998년(40세) 일신방직 낮 근무 시작
- 2001년(43세) 광양으로 이주
- 2012년(54세) 광양 포스코건설 협력사 입사. 9년째 근무 중
- 2018년(60세)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입학
- 2021년(현재) 순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